

KEPID Web Magazine

2026, Vol.07

우리들의 이야기

ZOOM IN

ZOOM IN

- 삼천포 사업처장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



최민현 삼천포사업처장의 하루를 따라가며
현장의 생생한 업무와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한 사업처를 총괄해야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웃음과 진심이 공존하는 리얼 브이로그!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준비에서 시작되는 하루



최민현 사업처장 / 삼천포 사업처
반갑습니다 삼천포 사업처장 최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천포사업처장 최민현입니다.”
아침 8시 무렵,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요한 내용만 아침에 정리해 둡니다.”
현장의 하루는 8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에게 하루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된다. 각 부서 작업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스케줄을 조율하며, 회의 준비를 마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게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으로 여는 현장



최민현 사업처장 / 삼천포 사업처
하루에 같은 지점을 6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직원들이 모여 스트레칭 체조를 시작한다.
“작업 전에 몸부터 풀어야죠. 체조 먼저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어 안전 구호가 힘차게 울린다. “안전장구 착용, 이상 무 화이팅!”
작업 전에는 반드시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한다. 공기구와 보호구 착용 상태를 반복해 확인한다.
공기구실을 둘러보며 그는 다시 한 번 묻는다.
“공기구 검사 다 했죠? 정렬 상태 이상 없어요? 오버홀 준비는 완벽합니까?”
추가 발주 상황까지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인다. 작은 부분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저탄장에서 만나는 바다



낭만이 있는 일터

저탄장은 발전소 가동 전 석탄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약 11km에 달하는 벨트컨베이어를 구간별로 나누어 하루 여섯 차례 점검한다.
“멀죠. 고생도 많죠. 하지만 자전거 타고 바다 보면서 가면 상쾌합니다.”
업무 중이기에 마냥 여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다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 모습이 직원들 사이에서 '낭만 처장'이라는 별명을 만든 이유일지도 모른다.

삼천포라는 이름



최민현 사업처장 / 삼천포 사업처
1990년 한전에 처음 입사해서 첫 발령지가 삼천포발전소였구요

점심을 마친 뒤, 그는 조용히 과거를 꺼낸다.
“삼천포는 제 첫 발령지였습니다. 1990년에 입사해서 여기서 시작했죠.”
본사와 여러 사업장을 거쳐 1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자리. 이제는 정년을 앞두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또 해보고 싶은 직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긍지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상은 일상이고, 그 외에 다른 걸 조금 더 가미하고 싶은 마음.”
현장의 책임자로서 하루를 빈틈없이 채우면서도, 삶에 작은 낭만을 더하고 싶다는 바람.
안전을 위해 반복 점검을 멈추지 않는 리더이자, 바다를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고, 조용히 기타를 연습하는 사람.
삼천포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간다.

유퀴즈 온 더 한산

- 삼천포사업처편 : 우리의 '본캐'와 '부캐'를 소개합니다 -



누구나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본캐'와 무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부캐'.
 삼천포사업처 직원들의 '본캐'와 '부캐' 이야기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각자의 열정을 조명합니다.
 업무 밖에서 더욱 빛나는 이야기,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전을 책임지는 '본캐'를 소개합니다.



박희영 : 안녕하세요. 안전품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공무 박희영입니다.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업 전 점검부터 현장 관리까지, 말 그대로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입니다.



조진수 : 연료운전 1발 1과 조진수입니다. 현장에 특이사항이 생기면 지원을 나가고, 평소에는 제어실에서 차단기 조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삼천포에 오게 된 이유?

박희영 : 원래 한산에서 근무하다가 향수병이 와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친구의 권유도 있었고요. 4조 2교대 근무라 한 달에 15일은 쉬게 되는데, 그 덕분에 자기계발이나 운동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수 : 저는 삼천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도 좋고, 동료들과의 분위기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100대 명산 완주한 무적의 '부캐'를 소개합니다

조진수 :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 골프, 헬스도 하지만 특히 등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했고, 동네 뒷산에서 출발해 점점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영남알프스도 다녀왔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인내심과 꾸준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었는데, 산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니 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을 완주했습니다. 1300여 일이 걸렸고, 본격적으로 도전했을 때는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증지에서 크루원들이 플래카드를 준비해 축하해줬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 완주하고 나니 정말 개운하고 시원했습니다.



B급 감성으로 가득한 '부캐'를 소개합니다

박희영 :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전문적인 코스프레라기보다는 B급 감성에 가깝습니다. 현지인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게 목적입니다. 추억을 남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복장은 '백조의 호수' 느낌의 은색 풀풀이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많은 시선을 받았고, 그게 묘하게 짜릿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사진을 봤습니다. 민망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웃음)

'부캐'가 있어 더 즐거운 '본캐' 생활

박희영 : 본캐에만 집중하면 삶이 루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활력소가 되는 취미가 있어야 더 오래,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조진수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본캐도 더 재미있어집니다.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면?

박희영 : 오늘처럼 밝은 분위기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조진수 : 회사에 더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캐는 책임감 있게, 부캐는 유쾌하게.
 삼천포사업처에는 오늘도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진관

- 장수사진 무료 촬영 재능 기부 현장 -

“한전산업개발과 사천시가 뭉쳤다!” 웃음꽃 피어난 ‘행복한 사진관’



경남 사천 향촌동행정복지센터 매향관

지난 2월 6일, 경남 사천 향촌동행정복지센터는 평소보다 훨씬 북적이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한전산업개발이 향촌동행정복지센터**와 손을 맞잡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생의 따뜻한 현장



“카메라 앞은 언제나 떨리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향촌동 최고의 모델!”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와 가까이 호흡하고자 하는 한전산업개발의 마음과, 주민들의 복지를 세심히 살피는 향촌동행정복지센터의 협업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마음 잔치’가 되었습니다.

셔터 소리에 실려 온 행복



“작가님, 나 예쁘게 나오는 거 맞지?”
 “어르신, 지금 강수연보다 더 예쁘십니다! 셔터 들어갑니다!”



“향촌동의 ‘알 파치노’ 등판! 장수사진도 합하게, 카리스마는 덤입니다.”
 촬영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쳐드리고 베타이를 바로잡아드리는 촬영팀의 손길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가서 찍으려면 쑥스러워서 못 갔을 텐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며 찍으니 참 좋네!”

사진, 그 이상의 선물

오늘 촬영된 사진들은 멋지게 액자로 제작되어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전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이처럼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드리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장님이 쓴다!

- 영흥화력 푸드트럭 현장 격려 -



사장님이 쓴 '빨간 맛' 응원 한 그릇

영흥도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영흥화력본부 긴급복구 공사 현장은 영하권의 기온 속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철거와 복구 작업, 현장의 기술자들은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 사장님이 특별한 응원을 보냈다.

현장에 등장한 빨간 푸드트럭

붉은 푸드트럭이 현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의 김, 매콤달콤한 떡볶이 향이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듯 번졌다. 잠시나마 긴장감이 풀리고,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쫄깃한 떡볶이 한 접시, 뜨끈한 어묵 국물 한 컵.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권보근 소장은 어묵 한 꼬치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동안 동료들은 서로를 챙겼다. 한 접시라도 더 건네주고, 국물 한 컵이라도 더 따라주며 현장 특유의 끈끈한 동료애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전해진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응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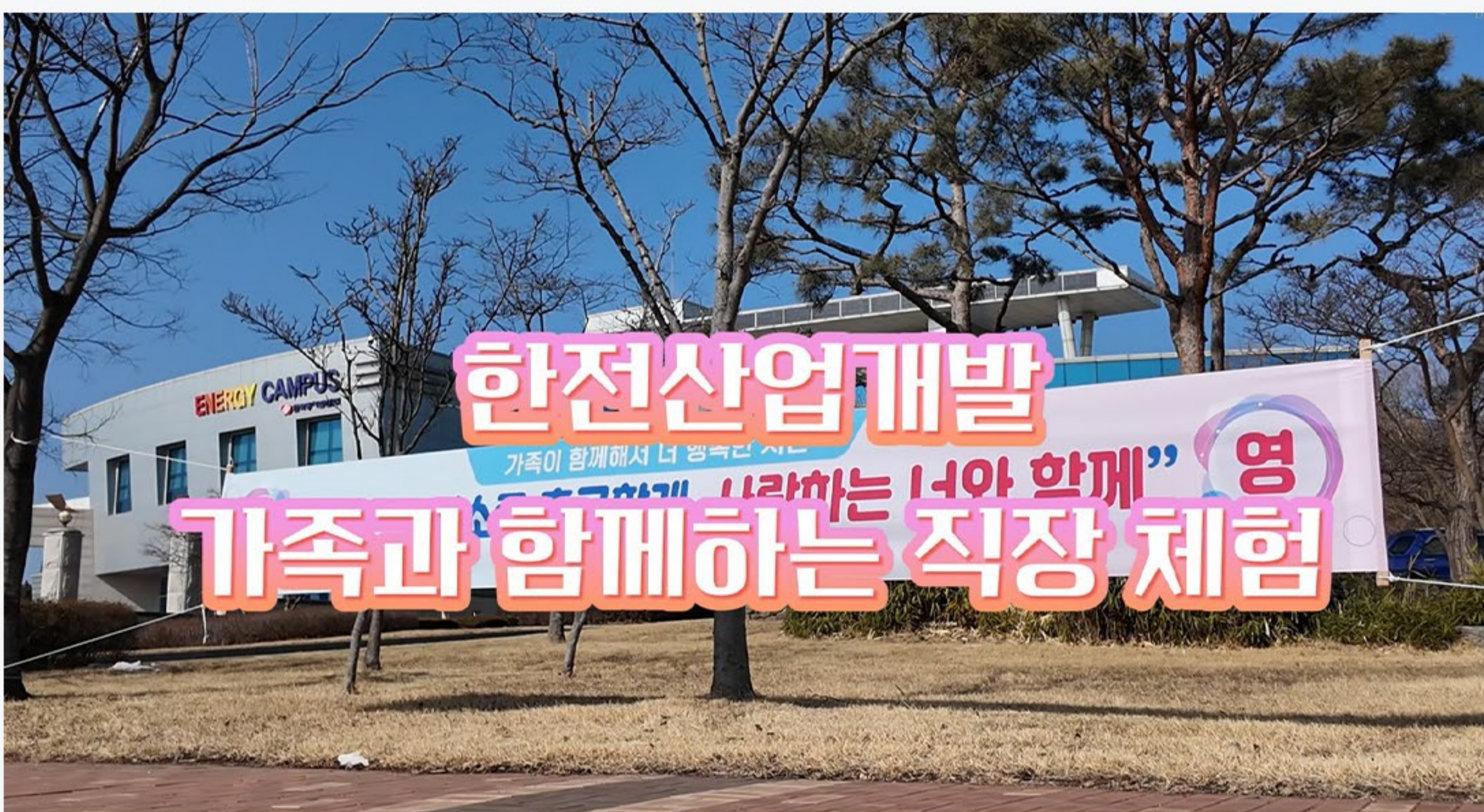
따뜻한 격려를 동력 삼아, 현장에서는 영흥화력 긴급복구 공사를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현장은 뜨거웠다.

그 열기의 중심에는 기술력과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응원이 있었다.

발전소 나들이

- 가족초청 발전소 탐방 행사,
<오늘은 발전소로 출근할게, 사랑하는 너와 함께> 현장 -



발전소에서 만든 가장 특별한 추억

“아빠(엄마)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

아이의 질문에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는 하루가 있었다.

한전산업개발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발전소를 함께 체험하는 특별 프로그램. 출근길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선 순간부터, 이날은 평범한 하루가 아닌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었다.

가상현실로 만나는 발전의 세계

먼저 가족들이 향한 곳은 메타버스 VR 체험 공간이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교육은 아이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시간이었고, 부모에게는 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최신 미디어 기술로 배우는 에너지



이날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당진 에너지캠퍼스 투어였다.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는 '석탄 연료가 되어 발전 과정을 체험하는 VR 체험'이었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석탄이 되어 연소 과정을 거치고, 증기로 변해 터빈을 돌리며, 전기가 생산되는 전 과정을 몸소 경험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는 살아 있는 이야기였다.

가족과 함께 남긴 하루의 기록



모든 체험이 끝난 뒤에는 가족 촬영 시간이 이어졌다.

캠퍼스 체험 공간에서 환하게 웃는 가족들.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의 모습, 부모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의 표정. 사진 속에는 단순한 '행사 기록'을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함께여서 더 의미 있었던 하루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 행사가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과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는 교육의 시간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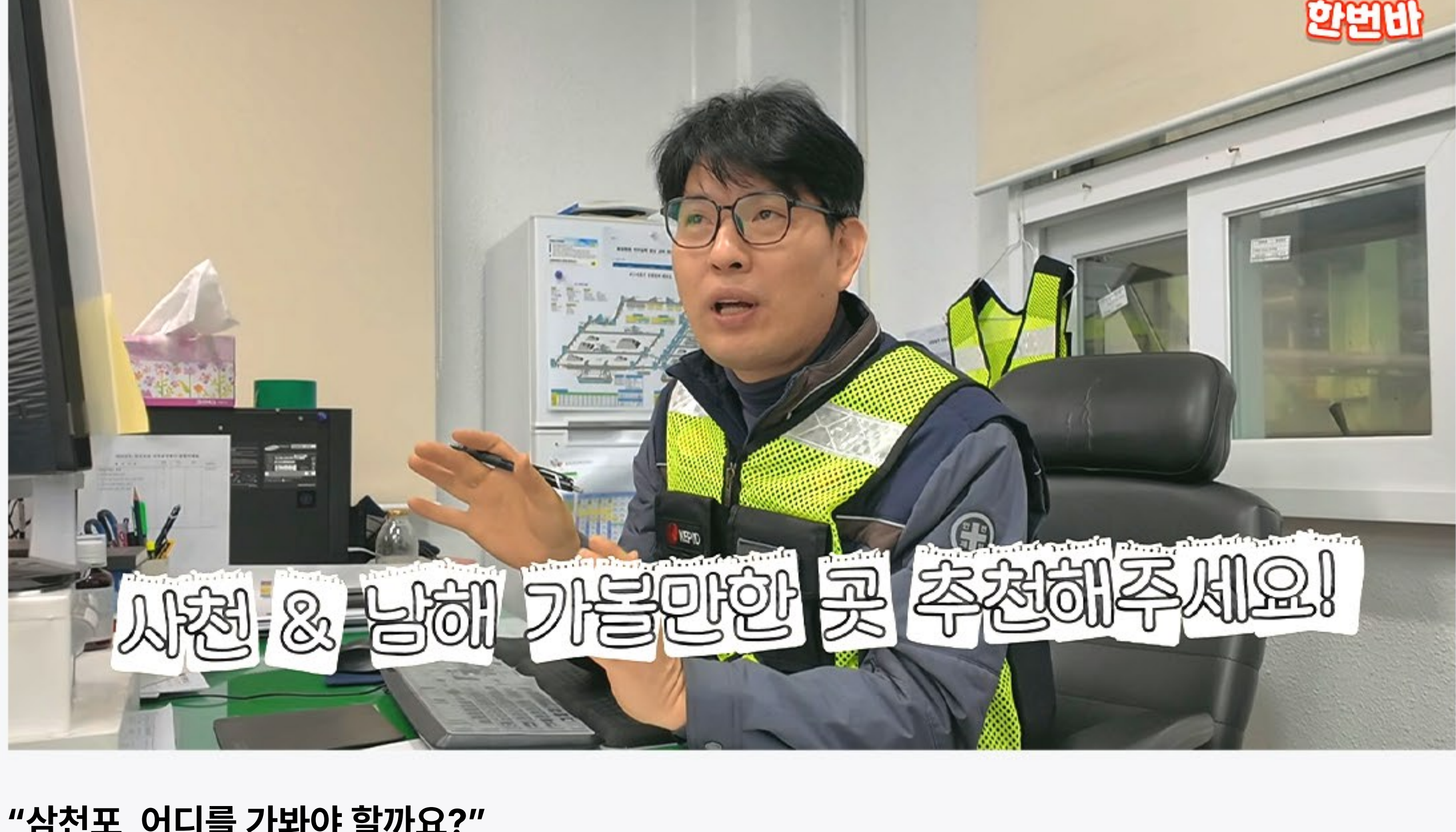
부모에게는 자신의 일을 가족과 공유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회사에서의 하루가,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되었다.

발전소는 그날, 전기뿐 아니라 '추억'도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다.

당일치기 한산

- 삼천포 현지인이 추천하는 당일치기 삼천포 여행! -



“삼천포, 어디를 가봐야 할까요?”

오랜 시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바다를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 삼천포사업처 직원들에게 직접 물었다.
 삼천포 현지 직원들이 직접 추천 한 당일치기 삼천포 코스
 지금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당일치기 삼천포’를 따라가 보자.



10:00

문학과 바다를 걷다 - 박재삼 문학관 & 노산공원

하루는 조용히 걷는 시간으로 시작한다.
 계단마다 시 제목이 적힌 ‘시의 길’에서 한 줄의 시를 읽으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보면 나오는 박재삼 문학관
 박재삼 문학관은 한국 서정시의 대가로 꼽히는 시인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내부에는 시인의 유품과 생애 자료,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삼천포의 문화적 결을 느끼기에 좋다.
 문학관을 나와 노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펼쳐지는 바다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여행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11:00

시장의 활기를 맞보다, 삼천포 용궁시장

삼천포 앞바다 자연산 해산물이 가득한 용궁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와 바다 향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직원들이 특히 강조한 곳은 ‘새삼꿀빵’. 팔이 넉넉하고 지나치게 달지 않아 현지인들이 더 찾는 집이다. 재료가 오면 중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간대 방문을 추천한다.



12:00

사천 북요리의 진수, 사천 대북복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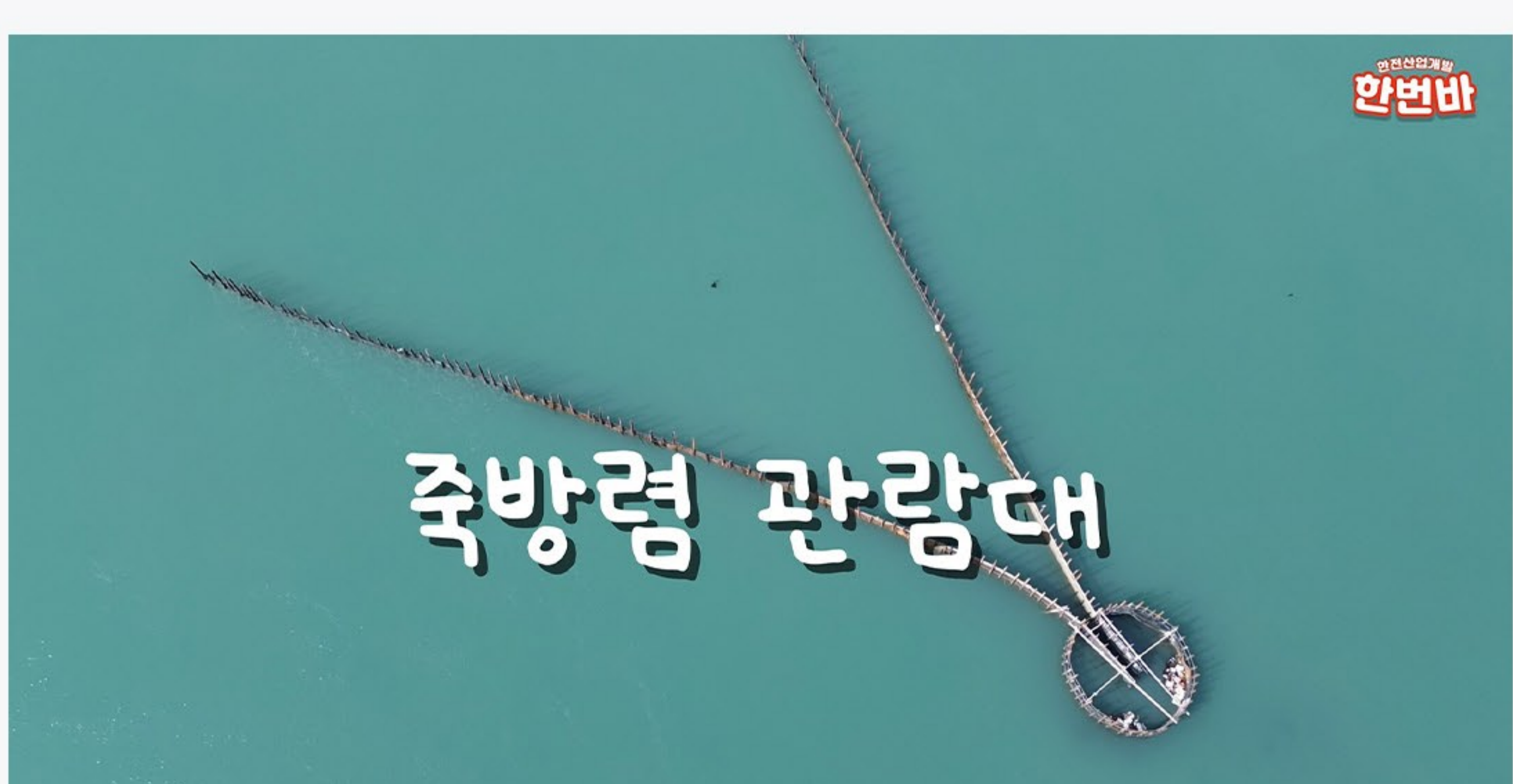
시장 구경으로 입맛을 돋웠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한 끼를 즐길 차례다.
 삼천포사업처 직원들이 “여긴 꼭 가보세요”라고 추천한 곳은 사천 대북복집.
 대표 메뉴는 북지리. 맑고 깊은 국물에 담백한 북어 살이 어우러져 속이 편안하게 풀린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맛이 인상적이다.
 오전 내내 걸었던 여정이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에 정리되는 느낌.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다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음 코스로 향한다.



13:00

바다 위를 건너다, 사천해상케이블카 &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순간, 삼천포의 지형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어 방문하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는 하마 하식이와 국내
 단 한 마리 뿐이라는 ‘공룡의 후예’ 슈빌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오후 1시~4시 사이에는 물속으로 잠수하는 하마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어 이 시간대
 방문이 좋다.



15:00

500년 전 우리 바다의 지혜를 만나다, 남해 죽방령 관람대

삼천포에서 차로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남해 죽방령 관람대.
 이곳은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원시어업 방식 ‘죽방령’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소다.
 참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어살을 V자 형태로 설치해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친화적
 어업으로,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관람대에서는 4월부터 12월 사이 밀물 시간에 실제 조업 과정을 볼 수 있다.



16:00

이국적인 풍경 속으로, 남해 독일마을

남해 독일마을은 1960년대 독일에 독립에 파견되었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귀국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마을이다. 붉은 지붕과 이국적인 건축
 양식이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통 어업을 만난 뒤, 이국적인 마을을 걷는 시간. 하루 안에 전통과 현대, 한국과 유럽 감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18:00

바다의 맛으로 마무리, 어부횃집

마지막은 역시 바다 앞 횃집이다.
 삼천포 앞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회와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진다. 하루 종일 바다를 보고, 걷고, 체험한 뒤 맛보는 한 점은 여행의 완성이다.

겨울여행 in 강원

- 삼천포 현지인이 추천하는 당일치기 삼천포 여행! -



눈부신 설경 속, 아름다웠던 강원도의 겨울을 돌아보며

겨울의 강원도는 차갑지만 그만큼 또렷하다. 맑은 공기, 눈 덮인 산과 들, 그리고 계절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체험들. 이번 코스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고, 얼음 위에서 겨울을 즐기며, 전나무 숲길을 거쳐 양들과 교감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 낭만과 체험, 휴식까지 모두 담은 강원도 겨울 여행 현장을 소개한다.



1. 커피로 시작하는 아침 - 테라로사 커피공장

여행의 첫 시작은 커피 향으로 열어보자. 테라로사 커피공장은 이름 그대로 하나의 '공장' 같은 공간이다. 높은 층고와 넓은 내부 구조 덕분에 겨울철에도 답답함 없이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의 백미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선 '커피 뮤지엄'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정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는 약 40~50분 동안 이어진다. 커피의 역사와 문화, 원두의 특징을 친절한 설명과 함께 배우고, 마지막에는 원두별 시음까지 경험할 수 있다. 커피를 사랑하는 이라면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경험이다.



2. 얼음 위에서 만나는 겨울의 짜릿함 - 평창 송어축제

강원도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축제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겨울 행사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체험은 단연 얼음낚시다. 두꺼운 얼음 위에 뚫린 구멍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기다리다 보면, 손끝으로 전해지는 짜릿한 입질이 찾아온다.

직접 잡은 송어는 현장에서 손질해 바로 맛볼 수 있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맛보는 따뜻한 한 그릇은 겨울 여행의 또 다른 묘미다.



3. 전나무 숲길 끝에서 만나는 탄산 약수 - 방아다리 약수터

조선 숙종 때 발견된 탄산천으로, 1987년 '한국의 명수'로 지정된 곳이다. 약수터까지는 약 200m 남짓 전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여 한층 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약수는 탄산수처럼 톡 쏘는 맛이 특징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시는 약수 한 모금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상쾌하다. 화려한 체험 대신 조용한 사색을 원한다면 이곳이 좋은 선택이 된다.



4. 귀여운 양들과의 교감 - 대관령 양떼목장

겨울의 마지막 코스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공간이다. 대관령 양떼목장에서는 양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방목 대신 축사에 모여 있어 오히려 더 가까이 교감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이 계절에는 귀여운 새끼 양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눈 덮인 초원과 하얀 양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강원도 겨울의 정취를 가장 따뜻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성과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적 수주성과와 비전 -

함양에서 창녕까지, 우리 회사가 밝히는 '안전한 길'



고속도로를 지나는 길 위에, 우리의 빛이 안전을 지켜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함양과 창녕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 환한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기 공사를 넘어, 든든한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의 흐름은 더 빠르게, 지역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만든 길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달릴 자동차들을 기대해 주세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안전하도록, 우리 회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미래, 여수에서 답을 찾다!



우리 회사가 여수바스프사업처 현판식을 열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의 에너지 설비 운영을 우리가 직접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큼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팀 보일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민간 에너지 시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전은 급변하는 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여수를 시작으로 더 넓은 에너지 시장으로 뻗어 나갈 우리 회사의 활약을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우리 회사가 지키는 안심 고지서, 더 똑똑해진 빌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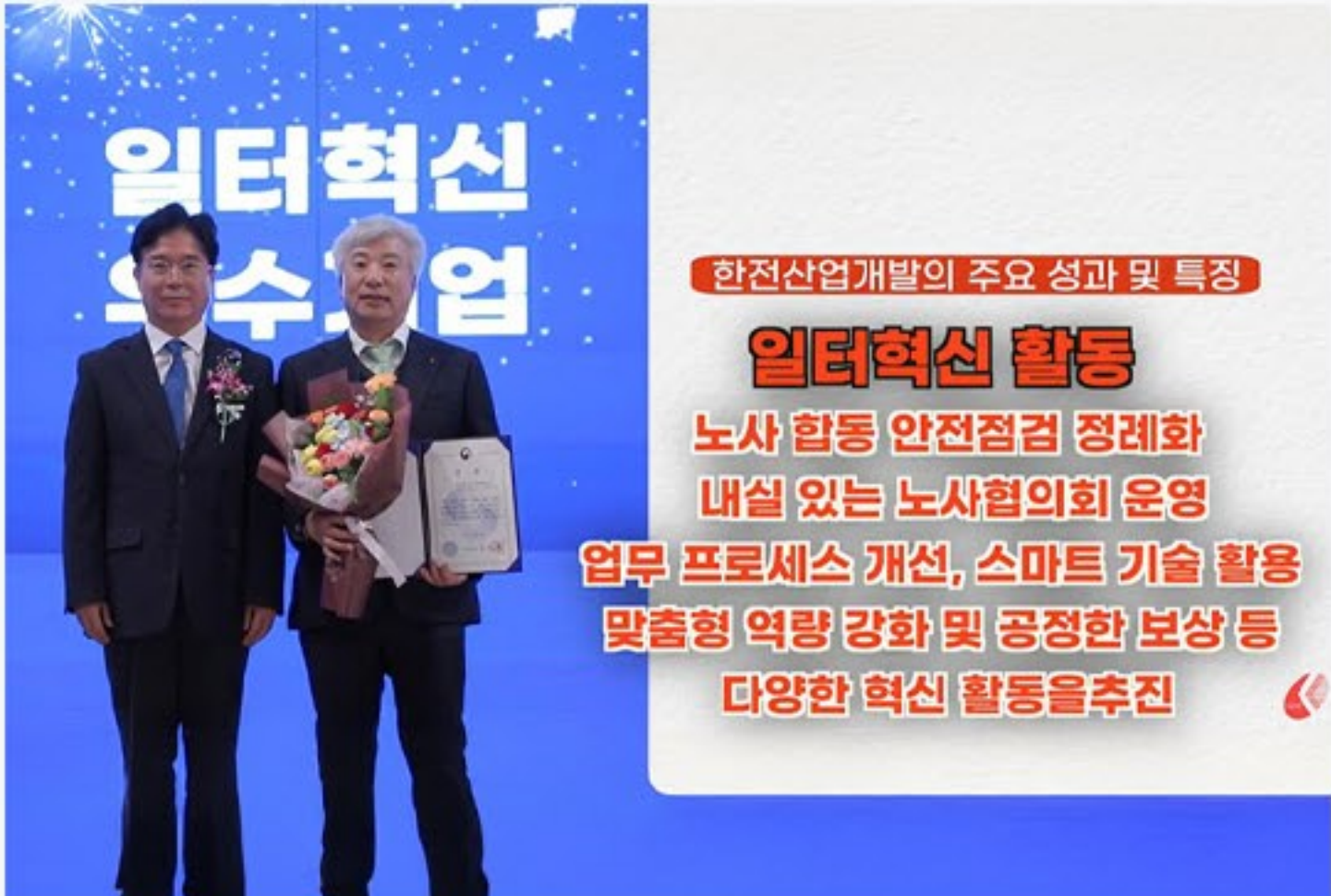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수많은 가구의 일상을 연결하는 전기요금 전자청구 서비스를 새롭게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지서를 보내는 일을 넘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는 보안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회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사회 공헌의 결실

-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 성과 리포트 -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우리가 증명한 '일터혁신'의 가치



일터혁신우수기업 주요성과



일터혁신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리 회사는 복수노조 체제 아래에서도 노사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과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내실을 다졌으며,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포용적 고용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일터를 구현해 냈습니다. 이처럼 사람 중심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인정받아 이번에 일터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한국ESG 대상 수상의 쾌거



한국ESG대상 시상식



한국ESG대상

우리 회사는 노사 간의 두터운 신뢰 속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재능기부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한국ESG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는 내일, 남북하나재단 '기부 감사의 날'에 진심을 더하다



한전산업개발 사장님(오른쪽)



단체사진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남북하나재단 주최 '기부 감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정성 채움을 통한 일터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후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이웃들이 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상생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극장에 울려 퍼진 '소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온기로 남다



서편제 관람 현장



방한용품 전달 현장

우리 회사는 종로구 어르신들을 정동극장에 초청하여 뮤지컬 <서편제> 관람을 지원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공연으로 어르신들께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공연 후에는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방한용품을 기념품으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노후전선 교체부터 소머리국밥 나눔까지...웃점향에 전한 온기



LED조명등 교체하는 모습



단체사진

한전산업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12월 10일 안원도 웃점향에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10가구의 노후 전선과 LED 조명을 교체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으며, 냉방고와 온열매트, 목토시 등 방한용품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소머리국밥을 나누며 이웃의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사의 전문성과 정성을 모은 이번 나눔이 웃점향 주민들께 든든한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전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라서 더 따뜻한 겨울,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온기 나눔



한전산업개발은 연말을 맞아 여명학교 등 대학교 4개교에 맞춤형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활동은 탈북 청소년의 생활 지원과 VR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각 학교의 수요에 맞춰 쌀, 전기장판, 건조기, 압력밥솥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물품들을 기부했습니다. 여명학교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한 물품 전달식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VR 체험 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산업개발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지속하겠습니다.

새 소식

- 경영지원본부장 취임식 현장을 담다 -



저는 이번에 한전산업개발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된 황대현입니다.

지난 2월 23일,

한전산업개발의 경영 지원을 총괄할 황대현 경영지원본부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황 본부장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조직 관리와 기획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그동안 대주주 측에서 회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변화의 시기에 조직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임직원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세 가지 약속

황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 가지 실천 과제를 강조했다.

먼저, **안전한 일터 조성**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전은 모든 경영 활동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는 **진심 어린 소통**이다.

노사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구성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신념 아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제도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견 모음

- 웹진 '한산, 산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고, 더 보고 싶은 한전산업개발 웹진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향후 웹진 운영에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출하기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인식하면 설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한산 Quiz

한산 Quiz

한산 QUIZ 이벤트!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한 : '26.3.11(수) 15시까지

*Hint : 힌트는 사보안에 있습니다.



1. 작업 전 안전회의를 뜻하는 TBM의 풀네임은?

- ① Tool Box Meeting
- ② Training Based Meeting
- ③ Total Building Meeting
- ④ Tool Basic Meeting

2.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 있는 '공룡의 후예'라고 불리는 새는? ()

3.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한전산업개발의 사업처 인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무료 재능기부의 이름은?

- ① 장수 사진관
- ② 행복하게 찰칵!
- ③ 장수하세요!
- ④ 행복한 사진관



답변 제출하기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인식하면 설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